

2019년 4월 25일(목) 17:30배포 (배포 즉시 보도)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간현임 활동가(010-3099-8531) /

김명혜 교육아카이브팀장(010-6701-390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카라, 동물권 교육 <더배움> 집중강좌 열어

인문학·철학·과학을 넘나드는 동물권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총 6회 교육 진행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6회에 걸쳐 동물권 교육 <더배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더배움>은 인문학, 윤리학, 철학, 과학을 바탕으로 동물의 권리, 사람과 동물의 관계, 환경과 생태계, 생명과 공존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물권 교육의 대중적 확산과 동물권 인식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동물 운동의 철학적, 이론적 토대를 짚어보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최재천 초대 국립생태원장 겸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호모 심비우스’ 주제 강좌를 시작으로, 종차별과 성차별을 에코페미니즘으로 풀어내는 황주영 페미니스트 철학 연구자,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종무 수의사, 해양환경보호단체 시세퍼드 활동가이자 최근 ‘아무튼 비건’ 책을 출간한 김한민 작가,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해 동물행동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이화여자대학교 장이권 교수, 동물생태학을 전공하고 동물권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까지 모두 6회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참가 신청 가능하며, 교육은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 더불어숨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12만원이며, 자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끝)

《카라 동물권 더배움》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5/14(화) ~ 6/18(화),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6강)
- 장소 : 카라 더블어셈블리 교육장(B1)/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 대상 :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 참가비 : 12만원, 회원 10만원(3개월 이상 정기 후원 기준), *강의 개별 신청 불가
- ※ 취소 시 환불 기준
교육 시작 1주일 전(5/7)까지 100% 환불, 3일 전(5/10)까지 70%, 1일 전(5/13)까지 50%, 교육 시작(5/14) 이후 환불 불가
- 프로그램
 - 1회(5/14) : 호모 심비우스와 두 동굴 이야기 / 최재천
 - 2회(5/21) : 종차별과 성차별의 얽힘, 에코페미니즘으로 풀어내기 / 황주영
 - 3회(5/28) : 생명윤리로 보는 가축 살처분 / 박종무
 - 4회(6/04) : 2048년의 바다 / 김한민
 - 5회(6/11) : 과학으로 본 전래동화 속 동물행동 / 장이권
 - 6회(6/18) : 개식용 종식을 향한 동물권 행동 / 전진경
- 신청방법 : 카라 홈페이지(<https://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1369>)
-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02-3482-0999 / edu@ekara.org

사진1. 더배움 프로그램 개요, 사진2. 더배움 프로그램 상세(강좌안내)

일시 5/14(화) ~ 6/18(화),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총 6강)

장소 카라 더불어숨센터 지하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대상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카라 동물권 더 배움。

더배움 집중강좌

날짜	강좌 제목	강사	키워드
5월 14일	호모 심비우스와 두 동굴 이야기	최재천	인간, 공생, 호모심비우스
5월 21일	종차별과 성차별의 얽힘, 에코페미니즘으로 풀어내기	황주영	인간중심주의, 관계, 보살핌 윤리
5월 28일	생명윤리로 보는 가축 살처분	박종무	가축 전염병, 공생명, 공장식 축산
6월 04일	2048년의 바다	김한민	해양동물, 환경오염, 비거니즘
6월 11일	과학으로 본 전래동화 속 동물들의 행동	장이권	문화, 동물행동, 생태
6월 18일	개식용 종식을 향한 동물권 행동	전진경	한국 동물권운동, 개식용, 법·제도 개선

참가비 12만원, 회원 10만원 (3개월 이상 정기 후원 기준)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501-336403 사단법인동물권행동카라
 ※ 개별 강좌 신청 불가
 ※ 취소 시 환불 기준 교육 시작 1주일 전(5/7)까지 100%, 시작 3일 전(5/10)까지 70%,
 시작 1일 전(5/13)까지 50%, 시작(5/14) 이후 환불 불가

문의 교육아카이브팀 02-3482-0999 | edu@ekara.org

**동물권행동
카라**

강좌 안내

5월 14일



최재전

1강 호모 심비우스와 두 동굴 이야기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이 없다.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즉 현명한 인간?이라는 자화자찬을 버리고 함께 사는 인간 즉 공생인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로 거듭나야 한다.

하버드대학 진화생물학 박사, 하버드대학 전임강사, 미시간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지냈고 2006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예고과학부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2019년 출간된 동물행동학 백과사전의 총괄 편집장을 역임했다. 생명다양성재단과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와 유엔기후변화포럼 명예대사로 일하고 있다.

5월 21일



황주영

2강 종차별과 성차별의 얽힘, 에코페미니즘으로 풀어내기

모든 차별과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비인간 동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성차별주의와 같은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폭력과 닮아 있고, 둘은 서로를 강화한다. 그래서 동물 문제는 곧 사람의 문제다.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동물권을 이해하고 이 얽힘을 풀어나 함께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 본다.

페미니스트 철학 분야에서 여성철학자 퀴스 이리기에와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다.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페미니즘의 개념들』, 『교차성×페미니즘, 에 글을 읽고』 『퀴스 이리기에, 를 출간했다. 동물권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이다.

5월 28일



박종우

3강 생명윤리로 보는 가축 살처분

거의 매년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축 살처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축 살처분이 어떤 이유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본다.

평화와생명동물병원 원장. 인공에 의해 상처받은 동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동물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 여러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저서로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살아있는 것들의 눈빛은 아름답다』 등이 있다.

6월 04일



김한민

4강 2048년의 바다

30년 후엔 생선이 식탁에 오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산업, 아쿠아리움, 관상용 어류 산업 등을 통해 인간이 해양동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비거니즘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해양환경보호단체 시셰퍼드(Sea Shepherd) 활동가이며 작가다. 『이무튼 비건』, 『그림 여행을 권함』 등의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포르투갈 포르투 대학교에서 페르난두 페소아의 문학에 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했고, 리스본 고등사회과학연구원(ISCTE) 박사과정에서 인류학을 공부했다.

6월 11일



장이권

5강 과학으로 본 전래동화 속 동물 행동

우리 조상은 항상 주변의 동물들과 환경을 관찰하여 거기서 얻은 정보를 농업이나 생활에 사용하였고 그들의 눈에 투영된 동물의 행동을 이용하여 전래동화를 창작하였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동물의 행동이 어느 정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진화적인 관점으로 동물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소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곤충, 개구리, 새 등에 관심이 있다. 현재 National Geographic Explorer,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관장, 생명과학과/예고과학부 교수이며 시민과학 지구사랑탐사대 대장이기도 하다.

6월 18일



전진경

6강 개식용 종식을 향한 동물권 행동

동물권행동 카리가 전개하고 있는 동물권 운동 중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소 돼지 닭은?'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질문의 사용들이 속에서 개식용종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한다.

약학을 전공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동물에 대한 관심은 연민으로 발전했다. 2002년 현 동물권행동 카리의 전신인 아홉몸에서 시작된 자원 활동은 2014년부터 카리에서의 상근 활동으로 이어졌다. 동물을 더 알고자 동물행동생태학을 공부를 시작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